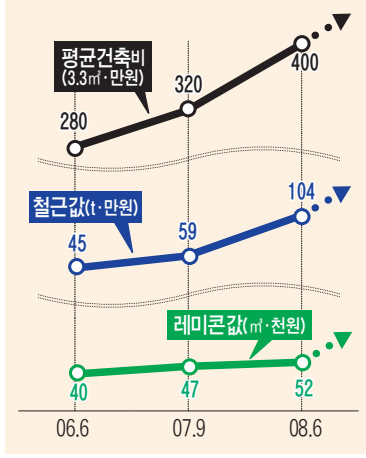


■광주지역 건축비·자재값 추이



건자재값 폭등 업친데 기록적 유가 덮쳐 분양가 더 오른다

광주지역 건축비 38% '경중' ... 철근 등 추가인상도
업체 수요심리 위축 우려 분양가에 반영 못해 고심

지난 2년간 건자재값 상승 등으로 아파트 건축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어 향후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의 평균 건축비(단지연면적 기준)는 2006년 3.3㎡당 280만원 수준에서 올 상반기에는 385만원으로 37.5%(105만원)나 치솟았다.

또 건축비를 실제 분양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최근 3.3㎡당 건축비가 600만원 선에 육박할 만큼 건설업체

의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건축자재 품목별로는 철근값이 2006년 t당 45만원에서 최근 104만원까지 치솟아 2.3배 이상 급등했다. 레미콘도 현재 광주지역 공급가가 m당 5만2천원에 달하면서 2년새 35% 가량 올랐다.

더구나 철근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당분간 급등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레미콘도 경유값 급등 등의 여파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은 건축자재 상승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지난 2년동안 가파른 오

름세를 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광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83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730만원)에 비해 14.1%(103만원) 오른 것으로, 2006년(611만원)보다는 36.3%(222만원)나 뛰었다. 최근 2년간 미분양 급증 등 시장침체 속에서도 집값은 되레 3분의 1 이상 오른 셈이다.

더욱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원자재가 상승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신규 주택의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4.5%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으로 철근값 인상분 등이 건축비에 본격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건자재값 급등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112㎡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66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비 비중이 높은 철근 및 레미콘값 급등으로 인해 3.3㎡당 19만원 이상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원자재가 급등폭을 모두 반영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현행보다 훨씬 높아야 하지만 수요자들의 투자위축을 우려, 업체들이 분양가를 소폭 인상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이즈·디자인·신기술 혁신 확 달라진 '로체 이노베이션'

기아차 3년만에 새 모델 출시 ... 오늘부터 시판

'로체 이노베이션(LOTZE innovation)'이 새로워진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기아자동차는 12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 1층 전시장에서 '로체 이노베이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로체 이노베이션은 지난 2005년 11월 로체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새 모델로, '이노베이션'은

사이즈, 디자인, 신기술 혁신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로체를 의미한다.

기아차는 '고품질 스포티 다이내믹 세단' 개발을 목표로 18개월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7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했으며, 연간 내수 6만대, 수출 8만대 등 총 14만대(2009년 기준)를 판매할 계획이다.

로체 이노베이션은 기존 로체보

다 전장 사이즈를 55mm 내려 중형 세단의 안정감과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기아차 디자인 총괄 담당(CDO)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의 지휘 아래 스포티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또 국내 최초로 경제안전 안내 시스템을 적용해 고유가 시대에 탁월한 연비를 실현했고 ▲다이나믹 쉬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자동요구 정수시스템 ▲블루투스 핸즈프리 및 오디오 스트리밍 등 하이테크 신기술과 편의사양을 중형차 최초로 적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시판가격은 2.0 모델 1천753만~2천350만원, 2.4 모델 2천715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방 미분양대책 '반쪽짜리' 그치나

취·등록세 면제 등 혜택 신규 미분양은 제외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신규 미분양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취득·등록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대책은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할 때만 해당된다.

이는 12일 이후 분양에 나섰다가 미분양으로 등록될 경우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출 및 세제혜택을 기존 미분양에만 한정할 경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11일 현재 미분양"의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한 후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목록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업체들이 가짜

미분양을 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높다.

건설회사가 미분양 물량을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통매각' 했거나 하청

업체 등에 공사비 대신 '대물' 등을 지급한 경우도 문제다. 이같은 물량은 공식 미분양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수요자는 11일 이후에 매수해 미분양 혜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우 매출 상승세 12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고객이 고깃 한우를 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광우병 논란 등 여파로 각 유통업체들의 한우매출 증가세가 꺾이거나 주춤하고 있지만, 최고급 한우매출은 대체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농촌 소득사업 개발 '빌리지닥터제' 운영 농협전남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농촌사람 1사촌 운동을 활성화하고 농촌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빌리지 닥터(Village doctor·마을주치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빌리지 닥터는 농촌사람 담당자, 자매기업의 전문인력, 농촌마을 전문 컨설팅 회사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마을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요원을 말하며, 농협중앙회에 의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에 따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대학교수 등 농촌전문가 6명으로 빌리지 닥터팀을 구성해 소득사업개발, 프로그램 개발, 자매결연기업과의 교류 확대방안 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ilee@

"평동 외국인 산단 '전봇대' 뽑아달라"

광주商議, 규제개혁과제 41건 대한상의·광주시에 개선 요구

광주시 평동외국인 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입주자격이 강화돼 업체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는 이같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칙·조례로 인한 기업예로를 조사해 4개 부문 41건을 발굴하고, 12일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과 광주시에 이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산업·건설부문 9건, 금융·세계·경영부문 13건, 노동·안전부문 7건, 환경부문 12건 등이다.

산업·건설부문의 경우 직접사공계 획서 제출대상공사 개선, 주계약자형 공공도급 실효성 제고, 지역내 발주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자연 녹지지역 공장운영의 건폐율 완화, 평동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조정 등이 포함됐다.

또 금융·세계·경영부문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율 인하, 중소기업 사업소세 완화, 생산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확대,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 중소기업의 기업상속지원 확대 등이 개선사항으로 거론됐다.

노동·안전부문은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 제도, 비정규직 활용범위 및 사용기간, 외국인근로자 채용제도 등이 기업예로사항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업무 개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강화에 따른 오염물질 부하량 재산정 건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계 소량배출자 관리, 환경관련 각종 협약 및 지정제도의 통합관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축소시행, 기업내에 설치된 오수 정화조의 의무정화실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전봇대'로 꼽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님네기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이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귀여운 분위와 안경을 놓여주는 영향력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11-873-5888, 873-4622

광합이수제 011-807-8330

ANYCHE CHAIR

기술과 정성을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유명기업체

Anyche

기술과 정성을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유명기업체